**스0407 Note**

**공용어 아람어 / 호크마 주석**

성 경: [스4:7]주제1: [방해 받은 성전 재건 공사]주제2: [집요한 방해 공작]

▶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–

 `아람어로 기록 되었는데 이는 아람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이다'로 번역되어야 가장 무난할 것이다.

즉, 아람어로 기록된 이 문서가 처음에는 다른 언어로 쓴 것을 다시 아람어로 번역된 것임을 가리킨다.

이처럼 문서를 아람어로 번역한 까닭은, 비록 정치.군사적으로는 페르시아가 중근동을 제패했으나 국제적 공용어로는 여전히 아람어가 사용됐었기 때문이었다.

이는 마치 비록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지만 헬라어가 그 당시의 공용어였던 것과 같다.